

해외 주요 국가별 시멘트산업 동향





인도

WBCSD CSI, 인도 시멘트 분야에 저탄소 녹색투자 지원

지속가능발전 세계기업협회(WBCSD)의 시멘트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CSI) 회원사들이 인도 시멘트업계를 위한 저탄소 기술 로드맵(Low Carbon Technology Roadmap)의 일환으로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협약을 맺고 인도 시멘트 분야에 대한 저탄소 녹색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WBCSD CSI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함께 발표한 2009년 세계 시멘트 기술 로드맵(World Cement Technology Roadmap)은 시멘트 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18%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키스탄

YB그룹, ICI 파키스탄 인수

파키스탄의 YB그룹이 ICI 파키스탄의 지분 75.8%를 인수했다. 이와 관련 YB그룹은 네덜란드의 AkzoNobel N.V.의 자회사인 Omicron B.V.가 소유하고 있던 ICI 파키스탄의 지분 75.8%를 1억5,25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YB그룹이 ICI 파키스탄을 인수한 이유는 파키스탄 내 사업규모 확대와 함께 업종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YB그룹은 럭키시멘트(Luckey Cement)를 비롯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멕시코

시멕스, 탄소 배출량 측정 모델링 시스템 개발

멕시코의 세계적인 시멘트회사인 시멕스(Cemex)가 생산 및 공급과정과 제품 인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탄소 측정 모델링 시스템인 'Carbon Footprint Calculator'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시멘트공장과 채석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관련 각종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료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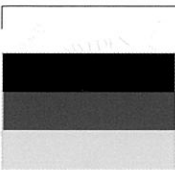
시멕스는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업계 최초로 탄소배출 측정 기법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생산제품에 탄소배출 증명서를 부착하기도 했다. 현재 시멕스는 약 40개의 프로젝트에 Carbon Footprint Calculator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멕스, 2012년 2분기 매출 전년대비 1% 증가

시멕스의 2012년 2분기 매출이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와 주택 분야의 수요 증가에 힘

입어 전년동기대비 1% 증가한 39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순매출 5억2,9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다. 기타 지역에서는 아시아가 10% 증가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15% 증가하며 7억9,500만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북유럽에서는 순매출이 18% 감소한 11억달러를 기록했고, 지중해 지역에서도 20% 감소한 3억8,400만달러를 나타내었으며, 멕시코도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했다.



독일

에프엘스미트사, 튜트린의 유지보수 서비스부문 인수

에프엘스미트(FLSmidth)사가 독일 튜트린(Teutine GmbH)사의 유지보수 서비스사업부문을 인수했다.

튜트린사는 유럽 및 중동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보수, 교체, 업그레이드 및 정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1973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시멘트 및 광물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수에 따라 튜트린사는 에프엘스미트사의 공장가동 및 장치 서비스사업 부문에 편입되었다.



스위스

ABB, Jura Cement에 ORC 전력시스템 설치

ABB가 Jura Cement와 ORC 전력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ORC(Organic Rankine Cycle) 시스템은 폐열을 활용해 이를 전기로 전환하는 열역학 장치이다.

ABB의 ORC 전력시스템 공급계약에는 설계에서부터 사업관리, 수송,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시스템이 완공될 경우 시간당 14,40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ura Cement측은 이번 ORC 전력시스템 구매계약 체결에 따라 약 2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ORC 전력시스템은 201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프랑스

Fives FCB사, 프랑스 테크닉 그룹 시멘트사업부 인수

Fives FCB사가 프랑스 테크닉 그룹(Groupe Technip France)의 시멘트사업부인 CLE를 인수했다.

테크닉 그룹(Technip Groupe) 시멘트사업부는 브라질, 터키, 모로코,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에 시멘트 설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Fives FCB사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시멘트분야에서의 글로벌 위상 강

화와 함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등 사업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스페인

시멘탈, 동아프리카에서 Plug & Grind 설비 수주 성공

스페인 시멘탈(Cemengal)이 동아프리카로부터 Plug & Grind 설비의 수주에 성공했다. 이 설비는 신속한 인도 및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비교적 저렴해 시멘트 생산과 유통 비용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시장진입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설비는 2013년 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집트

FLSmidth, 이집트 국영 시멘트회사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FLSmidth가 이집트 국영 시멘트회사인 National Cement Company의 2개 생산라인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FLSmidth는 향후 7년간 각종 소모품과 예비부품 제공, 기술 및 핵심 노하우 전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FLSmidth는 하루 3,800톤급 생산능력을 갖춘 생산라인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생산라인은 1980년대 중반 최초 설치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해왔다. 개편작업이 끝나는 2014년에는 각 라인의 생산능력이 하루 5,200톤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토고

하이델베르크시멘트, 아프리카 사업 확장

하이델베르크시멘트(Heidelberg Cement)가 토고의 수도인 로메(Lome)에서 북동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탐리보(Tabligo)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여 클링커 공장을 건설한다.

연산 150만톤 규모의 이 공장이 완공되면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시멘트사가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던 클링커를 무난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클링커는 토고(Togo), 베닌(Benin), 브루키나 파소(Burkina Faso), 가나(Ghana)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시멘트 분쇄공장으로 옮겨져 가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미 20만톤급 시멘트 분쇄공장이 다파옹(Dapaong)에 건설되고 있는데, 2015년 경에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투자는 이 지역에서 하이델베르크사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현지 인프라 개발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